

# “2명 요금 2800원...차라리 택시 타겠소”

### 광주 시내버스·지하철 요금 인상 첫날 곳곳 혼선

### 현금기준 성인 200원·청소년 100원 ↑...안내 부실

“급하게 버스를 탔는데 요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순간 당황스럽고 창피했죠. 기사께서 오늘부터 요금이 올랐다는 거예요.”

광주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인상된 1일 출근길 시민들의 표정은 곱지 않았다. 5년만의 인상이라고는 하지만 큰 폭으로 오른데다 안내문도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승객에게 익숙하지는 등 서비스는 그대로였다.

인상된 요금은 시내버스의 경우 교통카드 기준으로 성인 요금이 1100원에서

1250원으로 150원(13.6%)이 올랐다. 청소년은 750원에서 800원(6.7%), 어린이는 350원에서 400원(14.3%)으로 각각 50원씩 인상됐다. 현금의 경우 성인은 200원 오른 1400원이며 청소년과 어린이는 100원씩 인상돼 각각 800원과 500원을 내야 한다.

지하철의 어른 요금 인상액은 버스와 같지만 청소년과 어린이의 교통카드 기준 인상액은 각각 900원과 500원으로 버스보다 더 올랐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정류장 등에 A4용

지보다 조금 큰 ‘요금조정 안내문’을 게시했으나 요금 인상에 대해 몰랐던 시민들은 혼선을 빚었다.

직장인 박문길(45·광주시 서구 화정동)씨는 “버스 요금이 오른 줄 모르고 교통카드를 내밀었다가 크게 당황했다”며 “경제 여건은 전국 최악인데 대중교통 요금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니 짜증이 난다”고 말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류장에서 만난 회사원 유수현(여·28)씨는 “2000원을 냈는데 거스름돈을 600원만 남겨주길래 따졌다가 뒤늦게 200원이 오른 사실을 알았다”면서 “광주시와 버스회사에서 안내를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조선대에서 만난 대학생 김현지(여·21)

씨는 “2명이 버스를 타려면 2800원을 내야 하는데 그럴바엔 택시를 타겠다”고 말했다.

요금 올랐지만 서비스는 그대로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높다.

오전 10시30분께 서구 영주맨션 앞에서 시내버스 59번 승객 중 한 고등학생이 하차하며 환승체크 탓에 주춤하 버스기사가 “빨리 안내리고 뭐하냐”며 욕박질렀다.

지하철은 시내버스 보다는 차분했다. 대부분이 교통카드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하철 이용객들도 10명 중 8명은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해 오른 줄 몰랐다”고 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2 해질 19:35  
달출몰 04:53 달지름 18:58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Seoul, Gyeonggi, Jeonnam, etc.) including temperature, wind, and precipitation.



### 총장 간선제 반발

### 전남대 교수 단식농성

전남대 김영철 교수회 회장이 1일 대학본부의 일방적 ‘총장 간선제 추진’에 반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김 교수는 이날 “전남대 교수들이 모두 투표에 참여,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하기로 결의했음에도 지병문 총장은 구성원들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간선제 방식의 개정안을 발표했다”면서 “직선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구성원들을 설득할 대안을 제시할 때까지 단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전문대 입시 10명중 8명 수시 선발

### 9월8일부터 원서 접수

2017학년도 전문대 입시는 10명 중 8명을 수시로 뽑는다.

1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전국 137개 전문대의 ‘2017학년도 수시모집 주요사항’에 따르면 전체 모집인원(21만1200명)의 84.7%인 17만8790명을 수시 모집으로 선발한다.

수시모집 인원은 지난해(18만1106명)에 견줘 2316명(1.3%)이 줄었지만 선발 비중은 0.6%포인트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시모집 비중은 2015학년도 82.3%, 2016학년도 84.1% 등으로 매년 상승세다.

또 전체 모집인원의 80.9%인 14만

4671명을 ‘학생부 우수’ 전형으로 모집하는 한편, 면접(1만7140명·9.6%), 서류(1만3211명·7.4%), 실기(3768명·2.1%) 순으로 뽑는다.

조선이공대가 3개 학과(9명)에서 학업성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산업체 인사가 평가에 참여해 직업적성에 맞는 학생을 뽑는 ‘비교과 입학전형’을 진행하는 등 전국 21개 대학 172개 학과가 1349명을 비교과 입학전형으로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수능 전과 수능 후로 나눠 1·2차로 진행된다. 1차 모집은 9월8일~29일까지 22일간, 2차 모집은 11월9일~21일까지 13일간 각각 시행된다. 전문대학은 횡수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김지우기자 dok2000@

### 전남대 로스쿨 출신 2명 법관 임명

### 차기현·남요섭 변호사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남요섭(변시 1회)·차기현(변시 2회) 변호사가 신임 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1일 대회의실에서 로스쿨 출신 경력 3년 이상 신임 법관 26명의 임명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법관 임용에서는 법관 구성의 다양성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법학 전공자 외에 다양한 전공자를 선발했다. 법학 전공자는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경영학과 교육학, 경제학, 공학 등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가졌다.

출신 로스쿨도 골고루 분포했다는 평가다. 성균관대 로스쿨이 4명으로 가장

많고, 이화여대와 인하대 로스쿨이 각각 3명의 법관을 배출했다. 이어 고려대와 서울대, 전남대, 충남대, 한국외대, 한양대 로스쿨 출신이 각 2명, 경북대와 부산대, 아주대, 전북대 로스쿨 출신이 각 1명이다.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2명,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4명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16명, 여성이 10명이다.

전남대 로스쿨은 지난해 4명에 이어 이번엔 2명의 법관을 배출하게 됐다. 이번에 임명된 법관은 2기인 차기현 판사와 남요섭 판사다.

신임 법관들은 내년 2월 준순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은 후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 /\*박정욱기자 jwpark@

### 오스트리아·독일 삼겹살 국산 둔갑

### 품관원, 전남 관광지 주변 60곳 적발...돼지고기 18개로 최다

오스트리아산과 독일산 삼겹살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최근 유명 관광지와 해수욕장 주변 전문음식점 등 3750개소를 점검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 60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축산판매점은 오스트리아산 삼겹살을 국내산 대패삼겹살로 표시해 78kg을 팔다 적발됐으며, B식당은 독일산 삼겹살을 두루치기로 제공하면서 국내산 돼지고기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C마트 정육판매점은 호주산 쇠고기를 양념불고기로 만들어 국내산 쇠고기로 표시해 팔다 적발됐다.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18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0개소, 닭고기 3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가 많은 이유는 여름 휴가를 맞아 소비자들이 삼겹살과 목살을 주로 찾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격도 국내산 삼겹살이 1kg에 2만1000~2만2000원인데 비해, 독일산 삼겹살은 1만1000~1만2000원으로 1만원가량 싸서 업소 주인들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농관원은 오는 12일까지 주요 관광지와 해수욕장, 등산로 주변의 축산물 판매장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 위반 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전남 관광지 주변 음식점 위생 영망 76곳 적발

전남지역 관광지 주변 식품접객업소 76곳이 위생관리 위반으로 적발됐다.

전남도도와 시·군 합동 단속반(24개, 46명)은 최근 지역 관광지 주변 식품접객업소 456곳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한 결과,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 목적 보관 8곳, 건강진단 미실시 27곳, 조리장 불청결 12곳 등을 적발했다.

전남도는 적발 업소 중 고발 2곳, 영망 정지 9곳, 과태료 부과 46곳, 시설개수 명령 16곳, 시정 명령 3곳 등의 처분을 했다.

전남도는 영양사 고충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 993곳을 대상으로 이달 한 달간 관리자에 대한 위생·영양 관리 교육을 하고 급식시설의 환경과 위생 위생관리 여부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윤현식기자 chadol@

Advertisement for '자연그린한방병원' (Natural Green Hanbang Hospital) featuring a logo, text about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Prevention of recurrence after cancer surgery), and contact information: 대표전화 (062)952-3366.

Advertisement for '보청기' (Hearing Aid) with the slogan '국가가 인정하고 지원하는 착한보청기협동조합' (National recognized and supported Good Hearing Aid Cooperative). It includes the phone number 062)655-6544 and the address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